

## - 책 머리에 -

해가 바뀔 때마다 보신각에서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서울은 더 이상 어느 곳에서나 보신각 타종행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도시가 아니지만, 이제 보신각 종소리는 방송매체를 타고 서울 전역은 물론 이 나라 전체로 퍼져 나간다. 새 해가 시작되는 그 순간, 보신각이 있는 종로는 이 나라의 중심이 된다. 종로는 종각을 품고 있음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가로가 되는 셈이다.

사실 종로의 중심성은 조선 왕조 시대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인경과 바라를 통해 서울 시민의 생활리듬을 규제하던 종각(鐘閣)이 있음으로써, 그리고 서울 시민의 일상생활용품을 공급해 주던 시전(市廛)이 있음으로써, 종로는 변함없는 중심지일 수 있었다. 그 중심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흩어져서 이 거리는 다시 운종가(雲從街)가 되었고, 그리하여 조선왕조 중세 문화의 중심 거점이 되었다.

물론 지금의 종로는 조선시대의 종로가 아니다. 종로 길 좌우 곳곳에 위엄 있게 자리잡고 있던 관아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기로소터니 의금부터니 하여 옛 자취만을 알리는 석비만이 덩그마니 서 있다. 전국의 상권을 틀어쥐고 국제 무역을 좌우하던 시전의 자취도 이제는 보신각 뒤쪽의 몇몇 주단포목상들 속에서만 희미하게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의 종로에서 그나마 과거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종로 뒷길, 속칭 피맛길에서나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목로주점이 들어차 있던 좁디 좁은 골목은 지금도 '떡자골목'으로 성업 중이니 말이다.

물론 종로는 여전히 서울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더 이상 유일 중심은 아니다. 아닐뿐더러, 종로를 중심으로 만들어 주었던 요소들이 하나 둘

씩 명동으로 강남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실상은 '쭈정'이'뿐인 중심이 되어 버렸다. 종로의 변천은 지난 한 세기 서울이 겪은 엄청난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종로는 서울이 겪은 모든 변화를 앞서 겪었고, 그 자취를 공간 위에 깊이 새겨 넣었다. 종로 길 위에 전차가 놓였다가 철거되고 길 아래에 다시 지하철이 놓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이지만 종로가 겪은 변화의 전체상은 그보다 더 크고 심각했다. 모든 변화는 종로 공간 위에 누적되었고, 그에 따라 종로는 중세의 유적들과 초현대적 기념물들이 나란히 자리잡은 특징적인 공간이 되어 있다. 종로 타워와 보신각이 마주 보고 서 있는 기묘한 콘트라스트는 변화가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격변의 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에게나 어색하지 않은 풍경일 것이다.

이 책은 지난 20세기 서울의 변화상을 종로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서울학연구소에서 작년에 발간한 『청계천 : 시간, 장소, 사람』에 후속되는 연구작업의 성과물들을 묶은 것이다. 앞서 발간한 『청계천 : 시간, 장소, 사람』이 청계천 복개에 따른 도시 경관의 변화, 청계천변 사람들의 생활 등 현재적 모습에 주목했던 반면, 이 책은 서울에서 가장 '역사지층'이 두터운 종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와 문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와 소설 등 근현대 문학이 종로를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있었는지, 일제강점기 복촌 '조선인의 거리'로 격하된 종로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그렇지만 서울학의 학문적 관심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바는 현재요 미래이다. 현재 종로에 들어선 건축물들, 또 그 건축물과 가로, 간판들이 만들어내는 경관의 전체상, 상업가로 종로의 현상 등에 대한 연구도 빼놓을 수 없었다.

단 7편의 논문으로 20세기 종로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어이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서울학'의 관심으로 종로 가로에 대해 지표조사를 한 데 지나지 않을 뿐이지만, 그런만큼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시금석(試金石)으로서의 의의는 지닐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녀겨지

않은 연구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연구를 담당해 준 연구진에게 감사  
하며, 책을 만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서울학연구소의 김연희 연구원에게  
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2. 3.

서울학연구소장 홍 대 형